

【 해외금융 뉴스: 복미 】

2차 양적완화정책, 부정적 평가 확산

- 경제전문 웹사이트 마켓워치의 브렛 아렌즈(Brett Arends)는 2차 양적완화정책 시행 이후 오히려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경제성장률은 둔화되었으며 고용확대 효과도 미미했다고 지적하면서 2차 양적완화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함.
 - 미 중개사협회에 따르면 2차 양적완화정책 시행(2010년 11월 12일) 직전 17만 7천 달러였던 평균 주택가격이 현재 16만 3천 달러로 8% 가량 하락함.
 - GDP 성장률은 2010년 2/4분기 2.6%에서 2011년 1/4분기 1.8%로 크게 둔화되었으며, 4월 산업생산도 9개월 간의 상승세를 마감하고 하락세로 반전되는 등 경기회복세가 둔화되고 있음.
 - 2차 양적완화정책 시행 이후 정규직 근로자는 70만명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시간제 근로자가 60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양적완화정책이 신규 일자리 창출보다는 일자리 형태의 변화만을 유발한 것으로 평가됨.
 - S&P 500 지수는 2차 양적완화정책 시행계획이 발표(2010년 11월 3일)된 이후 26.0% 상승하였으나, 이는 달러화 약세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스위스 프랑과 금으로 환산한 S&P 500 지수는 각각 8.4%, 4.5% 상승에 그침.
- 한편 지난 4월 24일 뉴욕 타임즈도 2차 양적완화정책의 효과가 매우 작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, 2010년 11월 이후 경기회복세도 둔화되고 있다고 보도함.
 - 1차 양적완화정책의 경우 모기지 채권과 국채 등 광범위한 채권매입을 시행하면서 효과를 거두었으나, 2차 양적완화정책의 경우 매입대상을 국채로 제한하면서 가계나 중소기업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모기지 금리와 비우량 회사채 금리의 하락을 유도하지 못함.
 - 또한 재무부가 작년 11월부터 국채공급을 대거 확대하면서 연준의 국채매입 효과가 상당부분 상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, 기업의 차입이 늘고 있지 않은 것도 양적완화가 효과적이지 못하였음을 방증함.

(Marketwatch 등, 5/23)